

고구려 고분과 몸의 유교화 다시 보기

최종택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고고학 전공

jtchoi@korea.ac.kr

- I. 들어가며
 - II. 고구려 묘제와 장제의 전개 과정
 - III. 고구려 고분과 몸의 유교화
 -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고구려는 기원 전후부터 7세기 후반까지 한반도 북부지역과 중국 동북지방 일대에서 강대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많은 수의 고분이 조사되고 있다. 고구려의 고분은 적석총과 봉토분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며, 적계는 수십 기에서 많게는 수천 기가 군집을 이루고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고구려 고분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고분의 구조 특징 및 기원과 변천 과정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왕릉급 고분의 주인공 문제를 제외하면 피장자의 신분이나 시신의 처리 방식 등 피장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고구려의 묘제와 장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묘제의 특징과 변천 과정에 집중되어 왔다.¹ 20세기 말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고분의 장속과 장구에 대한 연구², 장제와 제사와 관련된 연구³, 왕릉급 고분의 주인공에 대한 연구⁴, 고분군의 조영 과정⁵, 고분군의 경관에 대한 연구⁶ 등 새로운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2-C13).

- 1 강현숙, 『고구려 고분 연구』(과천: 진인진, 2013); 강현숙·양시은·최종택, 『고구려 고고학』(과천: 진인진, 2020); 손수호, 『고구려고분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
- 2 方起東, 「高句麗的墓制和葬俗」,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93(1)(1993); 孫仁傑, 「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 『高句麗研究文集』(1993).
- 3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서울: 서경문화사, 2011); 최태정,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 상장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강현숙, 「고구려 무덤제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101(2018).
- 4 임기환·이즈마 우시오·모모자키 유스케·강현숙·바이건성, 『고구려 왕릉 연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5 최종택, 「집안 통구분지 고구려 고분군의 조영과정 연구」,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 1』(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6 장주탁, 「통구 고분군 3-5세기 고구려 적석총 경관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14(2021).

연구가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묘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고구려의 묘제와 장제의 특징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과 피장자의 신체를 다루는 방식, 나아가 사자의 몸에 대한 인식의 일단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구려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및 조성원리를 간략히 살펴보고,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으로 대별되는 묘제와 장제의 변천 과정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문헌 기록을 함께 분석하여 고구려의 전통적 상장의례와 유교적 상장의례의 일단을 살펴보고, 묘제의 변천 과정에서 피장자의 신체를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초기 적석총 단계에서 흔히 보이는 화장 또는 번소 의식의 실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분벽화 등장하는 인물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구려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그림1- 집안 통구분지 산성하고분군 전경(©최종택)

II. 고구려 묘제와 장제의 전개 과정

고구려의 고분은 오늘날 중국의 요령성 환인현 일원, 길림성 집안시 일대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및 황해도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최근 남한지역에도 적지만 고구려 고분이 조사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은 예외적으로 1~2기가 따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십 또는 수백 기, 많게는 수천 기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초기 도성이 위치한 환인현 일원에서 750기의 고분이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 도읍이 위치한 집안시 통구분지에는 1만 기가 넘는 많은 수의 고분이 분포해 있다(그림1).

고구려는 처음부터 돌로 고분을 축조했는데, 이는 주변 제 민족의 묘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은 축조 재료에 따라 강돌이나 다듬은 산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과 커다란 판석이나 할석으로 무덤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봉토석실분으로 대별되며, 적석총과 봉토분 모두 평면 형태는 방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매장 방식에 따라서는 곁을 짜고 시신을 안치한 후 뚜껑을 덮은 수혈식 묘제와 하나 이상의 무덤방을 만들고 묘도와 연도를 설치한 횡혈식 묘제로 나뉜다. 고분은 고구려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도성이 위치한 혼강유역과 압록강유역, 대동강유역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대부분의 고분군은 적석총과 봉토분이 혼재하는 양상이나 초기 도읍이 위치한 혼강유역과 압록강 중상류지역에는 적석총으로만 구성된 고분군이 분포하며, 대동강 유역에서도 적석총 단일 고분군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그림2).



그림2- 고구려 고분 분포도(©최종택)

고분은 주로 강안대지나 경사가 완만한 산기슭에 입지하는데, 여러 기의 고분이 열을 지어 분포하는 열상배치를 특징으로 한다(그림3). 또한 고분의 한 변에 연접하여 다른 고분을 축조하는 연접묘도 적지 않은데, 5~7기의 적석층이 연접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10기가 넘는 적석층이 연접된 경우도 있으며, 예외적으로 적석층과 봉토분이 연접된 경우도 확인된다. 열상배치의 경우 산기슭의 고분군은 경사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축조되고, 강안대지의 고분군은 하천의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며, 하천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축조된 것이 일반적이다. 통구분지 고분군의 경우 중대형 고분은 이러한 열상배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하며, 초대형 왕릉급 고분은 군집과 분리된 독립된 묘역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 통구분지 고분군의 경우 몇 개의 대규모 고분군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군집이 확인되고

각각은 일정한 고분군 조성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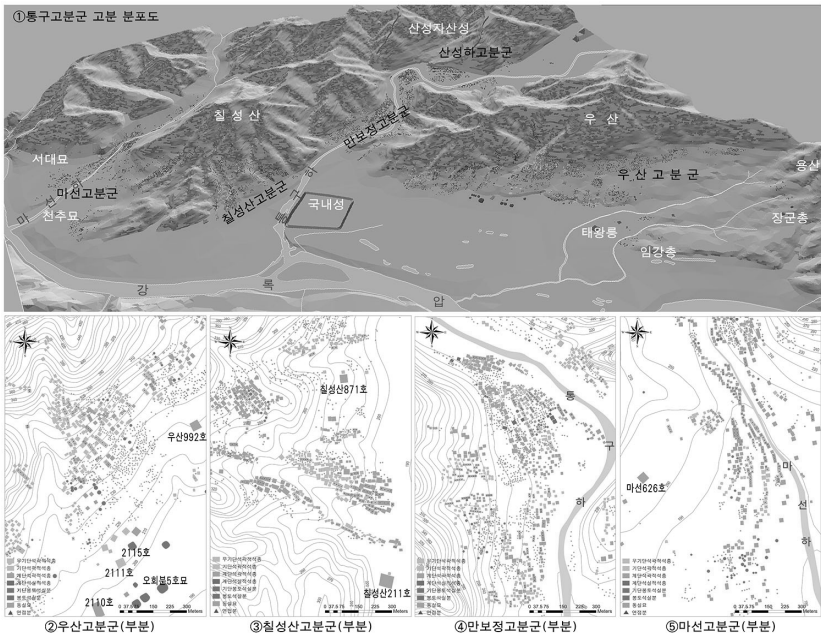


그림3- 집안 통구분지 고분군 분포도 및 열상배치(©최종택)

1. 적석층의 묘제와 장제

적석층은 지상에 돌을 깔고 그 위에 판을 놓고 돌을 덮어 마감한 독특한 구조인데,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도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 및 장례풍습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삼국지』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 및 장례풍습에 대하여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7 최종택, 앞의 논문(2015).

줄지어 심었다.”고 했으며⁸, 고구려와 풍습이 비슷한 부여의 경우에도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라고 무덤의 형태를 묘사했다.⁹

표1- 적석총의 형식 분류안 각종¹⁰

	수혈식장법			횡구		횡혈식 장법		
주영현 (1962)	무기단적석	기단적석		곽실적석		묘실적석		
정찬영 (1973)	강돌돌각담	돌기단, 수혈식		돌기단 연도표시		돌칸돌무덤		
張雪岩 (1979)	석광적석묘		계대식적석묘			방단계제석실묘		
方起東 劉振華 (1979)	적석석광묘	유단적석석광묘	계단석광분			계단적석		
						석실	동실	
李殿福 (1980)	적석묘	방단적석묘	방단계단적석묘			방단계단적석묘		방단봉석석실묘
陳大爲 (1981)	원구식		계대식적석묘	계대식 곽실		계대식 석실	봉석석실	
	석곽적석총			연도부석곽		석실적석총		
田村晃一 (1982)	방대형분구	1단(기단)	계단	단장	합장	공릉상 천정	석실지상	석실지표
方起東 (1985)	적석묘	기단 방단적석묘	계단적석묘(묘광)	계단적석묘 묘실				
魏存成 (1987)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	방단계제석광묘			방단계제석실묘		방단석실묘
지병목 (1987)	수혈식적석총			연도부기단		석실적석		
	무기단	방단	기단	연도무	연도유	기단석실		봉석석실
孫仁杰 (1993)	석광적석묘			광실적석묘		적석석실묘		

8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9 『三國志』 魏書 東夷傳 夫餘條, “其死 夏月皆用冰. 殺人徇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 7세기 초에 편찬된 『梁書』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 『梁書』 高句麗傳, “已嫁娶便稍作 送終之衣. 其死葬 有槨無棺. 好厚葬 金銀財幣盡於送死. 積石爲封 列植松柏. 兄死妻嫂.”

10 강현숙 외, 앞의 책(2020), 도V-1 수정.

	수혈식장법						횡구		횡형식 장법								
東潮 (1995)	무기단 석곽		방단부 원구석곽		방단석곽		방단 계제석곽		방단 계제석곽 연접		방단계제석실			방대형석실			
	원구	방구															
方起東 (1996)	적석석광묘				기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손수호 (2001)	무기단돌곽				기단돌곽							기단돌칸		계단돌칸		돌칸돌무덤	
鄭永振 (2003)	무기단석광적석묘				방단석광적석묘		방단계제석광 적석묘							방단계제석광 적석묘		방단석실적석묘	
김용성 (2005)	목곽묘(단관식/주부곽식)						목실 (단실, 유부곽식, 유이실식)				석실(단실, 유이실식)						
	무단원구	무단 방대형	방단방대형		방단 종단	계장 계단	계단 방대	계단 종단	방단 방대	방단 종단	계단 방대	계단 종단	방단 방대	방단 종단	계단 방대	계단 종단	지표방대형
여호규 (2012)	무기단묘곽				기단묘곽		계단묘곽		방단곽실		계단곽실		계단곽실		봉석석실		
강현숙 (2013)	무기단목곽				기단 목곽		〈계단〉		기단		계단		기단		계단		봉석석실
									목곽실, 목개석식		석실						동실

고구려 적석총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크게는 외형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매장주체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표1).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석총 형식 분류안의 공통점은 외형(분형)과 매장주체부(묘형)의 특징을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김용성의 분류안이 가장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적석총의 조사가 매우 부진하며, 기존에 조사된 고분의 경우에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자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계단식 적석총의 경우 어디까지를 기단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11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석총의 분형은 무기단식, 기단식, 계장식, 계단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묘형에 대해서는 장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곽과 목실, 석실의 분류안이 제안된 이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목실의 존재를 인정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목실의 존재를 인정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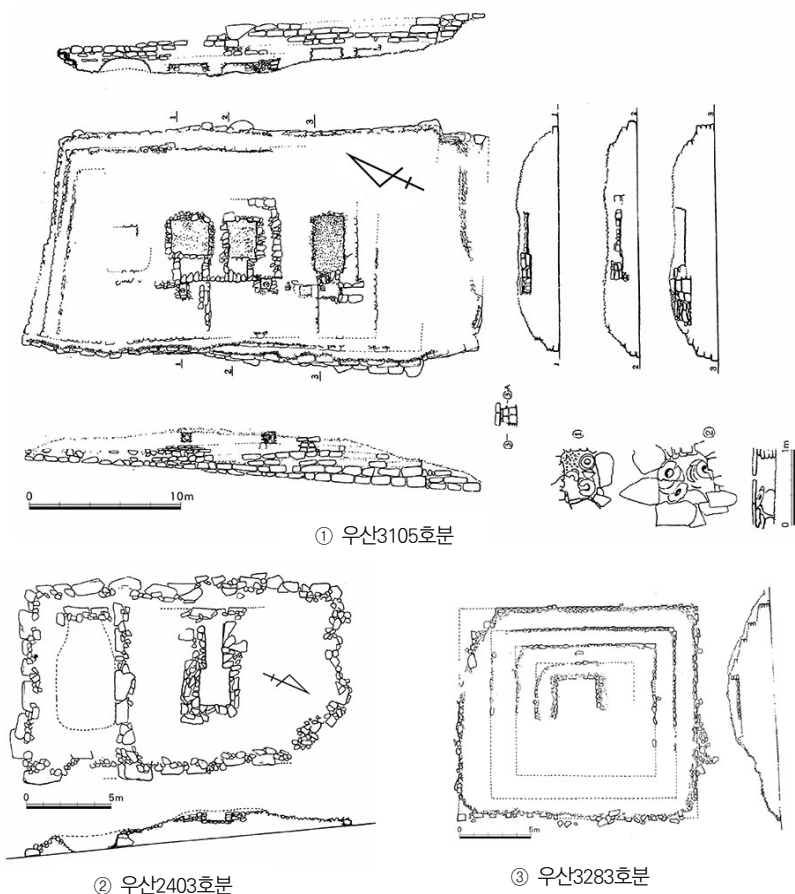


그림4- 집안 통구분지 우산고분군 목실적석총 각종¹²

1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吉林: 延邊大學出版社, 1993), 도6, 도8, 도9.

경우에도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에 차이가 있다. 목실의 존재를 처음 제안한 쑤런제(孫仁傑)는 장구의 존재를 통해 목곽과 목실의 존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장구의 존재만으로 목곽과 목실의 구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곽과 실의 차이는 출입구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며, 기존에 광실묘 또는 연도부석곽 등으로 표현된 구조를 목실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4). 목실의 지붕구조에 대해서는 태왕릉의 가형석곽(그림5)을 염두에 두면 맞배식 지붕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지붕에 초본류를 얹은 초가집 형태를 상정하기도 하지만¹³, 대부분의 광실묘에서 기와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와를 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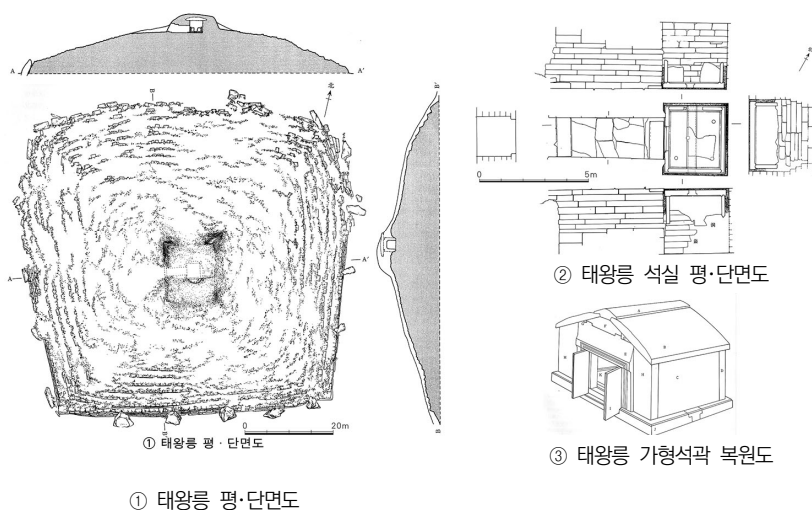


그림5-태왕릉 및 석실 평단면도 및 가형석곽 복원도¹⁴

13 孫仁傑, 앞의 논문(1993).

1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集安高句麗王陵』(北京: 文物出版社, 2004), 도 173, 도174, 도195, 도196.

그밖에 석실이 지상에 위치한 소형의 봉석동실묘를 적석총으로 이해하고 무기단석실적석총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커다란 판석으로 석실을 축조하고 외부를 돌로 마감한 형태인데, 소형 봉토석실분의 봉토부가 유실된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우산고분군의 집석공로 발굴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존에 동실묘로 분류되었던 고분들의 상당수가 봉토석실분으로 밝혀진 점¹⁵으로 미루어 무기단석실적석총으로 분류된 고분의 상당수는 봉토부가 유실된 석실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적석총의 구조와 문헌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적석총의 축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닥을 정지하고, 강자갈 또는 할석을 깔아 지면을 정지한다. 기단식 적석총의 경우 외면에는 치석된 커다란 석재를 두르고, 내부에 할석을 깔아 지면을 정지한다. 계장식 적석총의 경우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언덕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장을 추가하여 기단부를 확장한다. 계단식의 경우 기단의 폭을 줄여 가면서 층단부를 조성하는데, 중대형분의 경우 3~7단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단부 위에 목곽 또는 목실 및 석실을 설치한다. 목곽의 경우에는 벽체를 축조하면서 바깥쪽으로 석재를 쌓아 마무리한 후 목곽 내부에는 피장자와 부장품 등을 넣고 목재를 이용해 목곽을 덮은 후 다시 석재를 덮어 마감한다. 목실의 경우도 목곽과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되지만 목곽의 한쪽 면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맞배식 지붕에 기와를 덮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릉급 고분으로 추정되는 칠성산 871호분, 임강총, 우산 2110호분, 칠성산 211호분, 서대묘, 우산 992호분, 마선 2100호분 등이 이와 같은 가형 목실에 기와를 덮은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천추총과 태왕릉

15 최종택, 앞의 논문(2015).

단계에서는 석실 내부에 가형 석곽이 확인된다. 태왕릉의 경우 고분의 크기에 비해 석실이 매우 협소한 점 역시 석실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가형 목곽을 석곽으로 대체하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군총 단계에 이르러 전체 분형에 비해 석실의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석실적석총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적석총의 모형은 목곽 → 목실 → 석실, 분형은 무기단식 → 기단식 → 계장식 → 계단식 순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변천 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그림 6). 전기는 압록강유역에 적석총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기원전 2세기부터 3세기 대까지이며, 주로 무기단식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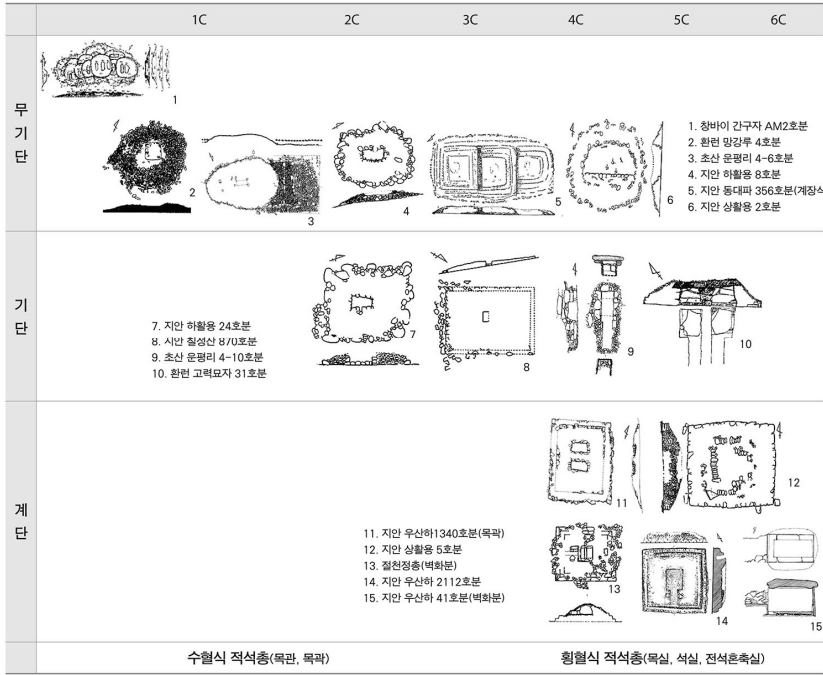


그림6- 적석총의 전개와 횡혈식 장법의 등장¹⁶

16 위의 책, 그림 V-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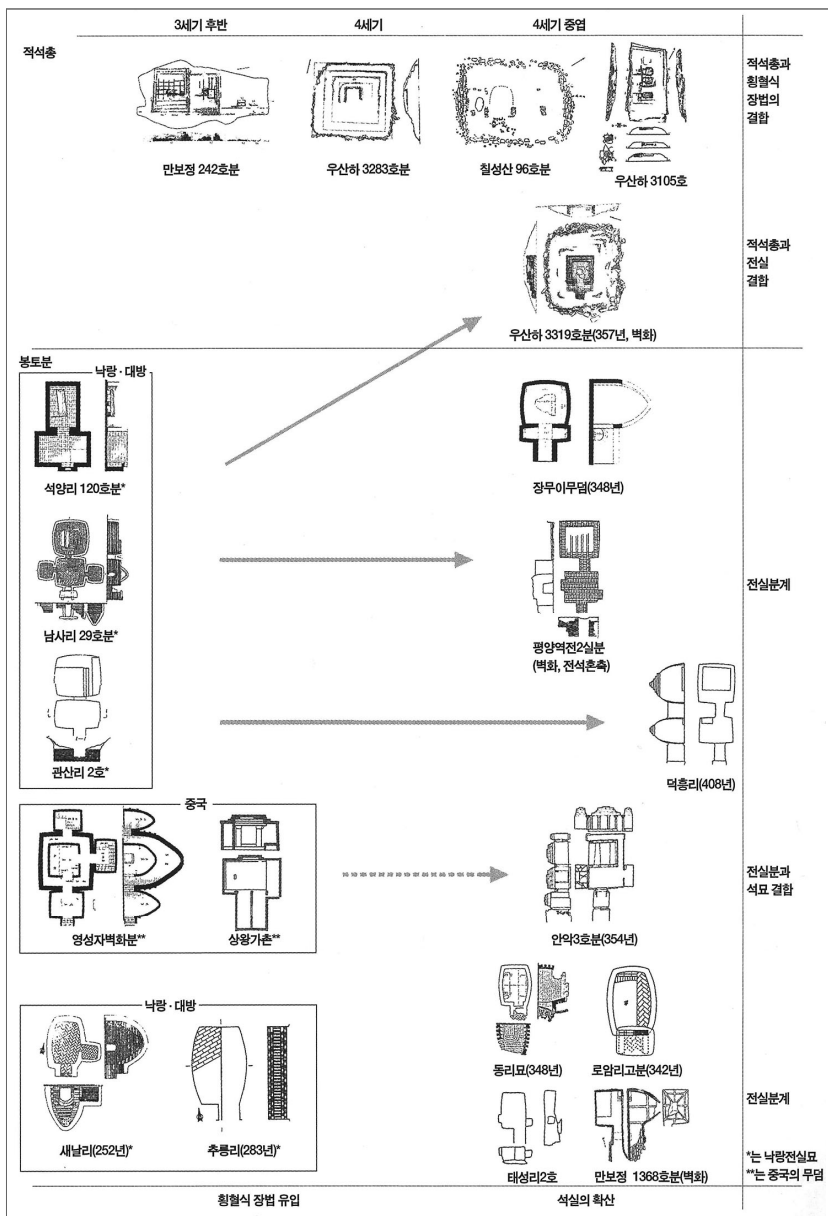


그림7- 횡혈식 장법의 수용과 정착 및 확산¹⁷⁾

석층이 중심이고, 매장주체부는 목곽이 주를 이룬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는 계단식적석층이 축조되고, 1세기경에는 방형의 기단식적석층이 축조된다. 중기는 4~5세기 대로 계단식적석층이 축조되는 시기로 매장주체부는 목실과 석실 등 횡혈식 구조가 주를 이룬다. 3세기 말, 늦어도 4세기 초에는 계단식목실적석층이 축조되기 시작하고, 4세기 중엽 이후에는 계단식석실적석층이 축조되어 4세기 후반에 크게 확산된다. 후기는 6세기 이후에는 석실봉토분이 주를 이루며 적석층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축조된다.¹⁸ 한편 우산3319호분은 계단식적석층이면서 연도가 달린 전실분인데, 천장석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목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2. 봉토석실분의 묘제와 장제

봉토석실분은 지상에 석실을 축조하고 방대형의 봉분을 구축한 형태로 이른 시기에는 적석층과 같은 형태의 기단을 갖춘 기단봉토석실분도 확인되는데, 횡혈식 장법이 채택되고 봉분을 흙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적석층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고구려에서 횡혈식 장법이 도입되는 과정은 3세기 후반~4세기 초반의 도입기와 4세기 중엽 이후 횡혈식 장법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단계로 구분된다(그림7).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묘제인 목곽적석층에 횡혈식 장법인 목실과 전실 및 석실이 채택되는데, 집안지역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장이 가능한 목실과 전실, 석실이 등장하고, 낙랑과 대방의 고지인 서북한지역에서는 벽돌 대신에 석재를 사용한 석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횡혈식 장법은 연도와 현실, 천장부를

17 강현숙, 앞의 책(2013), 그림 4-2.

18 강현숙 외, 앞의 책(2020), 172~173쪽.

모두 갖춘 완벽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혈식 장법이라는 관념의 수용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단계는 4세기 중엽경으로 연도와 현실 및 천장구조를 갖춘 완벽한 구조의 석실이 등장하고, 4세기 말 이후에는 황해도 일부 지역의 전실분을 제외하면 전면적으로 석실분이 확산하고, 묘실 벽화가 채택된다. 이후 6세기 이후에는 고구려 전역에 걸쳐 봉토석실분이 축조되며, 묘제의 제일성이 확인된다.¹⁹

봉토석실분은 지상에 석실을 구축하고 방대형의 봉토 분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묘제이지만, 석실의 축조 재료와 평면 형태 및 석실의 수, 천장 가구 등에서 매우 다양한 구조를 보인다. 석실을 축조하는 재료는 다듬어진 할석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대형분에서는 1매 또는 수 매의 커다란 석재를 이용해 벽면을 축조하기도 한다. 석실의 수는 단실과 쌍실, 다실 등 다양한데, 4~5세기 대에는 다실분과 쌍실분 및 단실분이 공존하지만 6세기 이후에는 단실분이 주를 이룬다. 또한 석실분은 추가장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지만 중소형 고분에서는 하나의 봉분 안에 여러 개의 석실을 축조하는 동분이혈식 구조가 채택되기도 한다. 현실의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횡장방형 등이 있는데, 횡장방형은 소수만 확인되며, 대체로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된다. 동분이혈식의 세장방형 묘실의 경우 폭이 좁아 합장이 불가능한 형태이며, 추가 합장을 위해 묘실의 폭이 넓어진 형태의 장방형 및 방형이 사용되고, 횡장방형의 경우 3인을 합장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 폭이 확장된 것이다.²⁰ 쌍실분의 경우 연도는 전실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단실분의 경우 묘실의 좌, 우 또는 중앙에 배치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중대형의 위계가 높은 고분의 경우는 중앙 연도가 주를 이룬다.

19 위의 책.

20 강현숙 외, 앞의 책(2020), 그림 V-29 참조.

봉토석실분의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천장 가구를 들 수 있는데, 평천장, 고임천장, 궁륭천장, 고임식+궁륭상천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그림8). 평천장은 1매에서 수 매 정도의 판석을 덮어 마감한 단순한 형태로 주로 중소형분에서 많이 확인된다. 고임식천장은 고구려 고분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로 삼각고임, 팔각고임, 평행고임, 평행삼각고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궁륭식천장은 위로 갈수록 조금씩 공간을 줄여서 마지막에 1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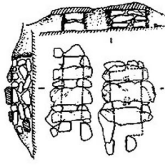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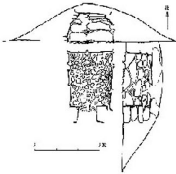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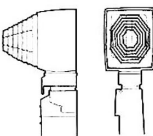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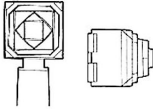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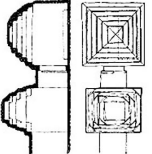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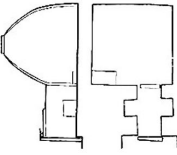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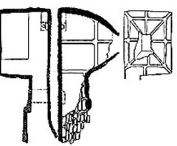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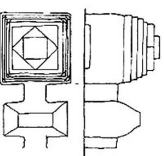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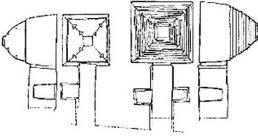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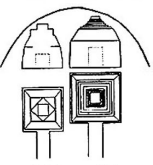
평천장			
고임식			
궁륭식			
고임 + 궁륭			

그림8-봉토석실분의 천장 가구 각종²¹

판석을 덮어 마감하는 형태이며, 절친정총이나 만보정 1368호분 처럼 위로 가면서 경사지게 공간을 줄여 쌓다가 급하게 꺾어서 마무리한 사야식천장 등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또한 고임식과 궁륭식천장을 함께 사용한 구조도 있으며, 다실분의 경우 전실과 현실의 천장에 서로 다른 가구 방식을 사용한 예도 확인된다. 봉토석실분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석실과 천장 가구 방식은 시간적인 차이보다는 무덤의 등급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황혈식 장법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이나 피장자의 출신 및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법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III. 고구려 고분과 몸의 유교화

고구려의 정치이념에는 고유의 전통사상과 함께 신정적 요소와 주술기복적 요소, 재이사상적 요소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혼재했으나 점차 유학사상이 정치이념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상왕 대 국상이었던 창조리는 지진과 흉년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왕이 궁실을 치장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이자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지 않으면 인자하지 못한 것이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하지 않으면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²²라고 했는데, 이 또한 유교적 정치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열전 등에는 국왕이 구민에 유의하고 궁궐한 자에게 의식을 지급하는 등 사회 정책적으로 구휼한 사례가 자주 보이는데, 이는 초기부터 유교적 사상에 의한 치자의 윤리가 확립된

21 강현숙 외, 앞의 책(2020), 그림 V-30 참조.

22 『三國史記』 卷17 高句麗 本紀 烽上王 9年條, “君不恤民 非仁也 臣不諫君 非忠也.”

것임을 보여준다.²³

소수림왕 2년(372)에는 불교를 도입하고, 태학을 설립하여 자제를 교육했으며, 이듬해에는 율령을 반포했다.²⁴ 태학은 유교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유교의 기본 경전인 시경·서경·주역·춘추·예기 등 오경을 강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서』이역열전에는 고구려에는 “서적이 오경·삼사·삼국지·진춘추가 있다.”고 했으며, 『북사』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²⁵ 고구려에서 태학 제도의 수용은 전진을 통해서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연을 통해 학교제도 수용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태학에서는 유교적 사상뿐만 아니라 말 타기와 활쏘기 등 군사교육도 함께 행한 것으로 보인다.²⁶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교육기관으로 경당이 주목되는데, 『구당서』에 따르면,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 빈천하고, 짐승이나 먹이는 집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대옥을 지어 이를 경당이라 불렀으며, 미혼의 자제들이 주야로 이곳에서 글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²⁷고 한다.

그밖에 고구려는 100권에 달하는 사서로 『유기』를 편찬한 바 있으며, 영양왕 때에는 박사 이문진으로 하여금 고사를 축소해 『신집』 5권을 수찬하게 하는 등 여러 번의 사서 찬수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고구려는 한문 문장을 수준 높게 구사하는 방대한 저작과 유교 경전을 비롯해 중국 문화를 능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음

23 최영성, 「고구려의 유교와 정치사상」,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109~110쪽.

24 『三國史記』卷18 高句麗 本紀 小獸林王 2年條, “秦王符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 以貢方物. 立大學 教育子弟.”; 『三國史記』卷18 高句麗 本紀 小獸林王 3年條, “始頒律令.”

25 『周書』異域列傳 高句麗條, “書籍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北史』列傳 高句麗條, “書有五經三史三國志晉陽秋.”

26 이정빈, 「고구려 태학 설립의 배경과 성격」, 『한국교육사학』 36(4)(2014).

27 『舊唐書』東夷列傳 高句麗條, “俗愛書籍 至於衡門廝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하에 유교는 생활문화 속에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혼인이나 장례 풍습에도 유교 사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내용이 자주 확인된다. 이처럼 소수림왕 대에 유교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율령이 반포되기 이전에도 고구려 사회와 예속에는 유교적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고구려의 상장의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고구려의 상장의례와 유교

일반적으로 상장의례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매장하기까지의 상례와 무덤에 매장하는 장례를 함께 이르는 말인데, 상장의례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는 물적 자료로 남겨지지 않으므로 고고 자료만으로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고구려의 상장의례 또는 제의와 관련된 기록은 소략하지만 『삼국지』, 『후한서』, 『삼국사기』, 『북사』, 『주서』, 『양서』, 『구당서』 등의 문헌과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및 집안고구려비 등에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1〉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사료2〉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三年條, “立東明王廟.”

〈사료3〉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九年條, “三月 下教. 崇信佛法求福. 命有司 立國社修宗廟.”

〈사료4〉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五年條, “怪由卒. … 王善其言 又以有大功勞 葬於北溟山 命有司以時祀之.”

〈사료5〉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瑠璃王 二十八年條, “以太子禮 葬於東原 立廟號其地爲槍原.”

〈사료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營留王 二十五年條, “太宗聞王死 舉哀於苑中 詔贈物三百段 遣使持節吊祭.”

〈사료7〉『北史』列傳 高句麗條, “死者 殯在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居父母及夫喪 服皆三年 兄弟三月.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 埋訖 取死者生時服玩 車馬置墓側 會葬者爭取而去.”

〈사료8〉『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 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사료9〉『後漢書』東夷列傳 高句麗條, “便稍營送終之具. 金銀財幣盡於厚葬 積石 爲封 亦種松柏.”

〈사료10〉『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川王 二十二年條, “秋九月 王薨. 葬於柴原 號曰東川王. 國人懷其恩德 莫不哀傷. 近臣欲自殺 以殉者衆 嗣王以爲非 禮 禁之. 至葬日 至墓自死者甚多. 國人伐柴 以覆其屍 遂名其地曰柴原.”

〈사료11〉『梁書』東夷列傳 高句麗條, “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其死葬 有槨無棺. 好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植松柏. 兄死妻嫂.”

〈사료12〉『三國史記』高句麗本紀 新大王 十五年條, “國相荅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이상의 사료에서 고구려의 상장의례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사료1〉~〈사료3〉을 통해 나라에서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냈으며, 이른 시기부터 유교적인 상장예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제사와 개인의 상장의례는 차이가 있었겠으나 왕족이나 귀족 계층의 상장의례에는 유교적 예법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사람이 죽으면 일정 기간 빈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7〉에서는 부모는 3년, 형제는 3달간 상복을 입는다고 했는데, 매장 이전에 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간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빈이 설치된 기간 동안 조문을 한 기록도 있는데, 〈사료6〉에는 당 태종이 영류왕의 서거 소식을 듣고, 별도의 애도식을 거행하고, 사신과 물건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하게 했다고 전한다. 〈사료12〉에는 재상 명림답부가 죽자 왕이 친히 조문하고

7일 동안 국정을 중단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광개토왕릉비에도 왕이 서거한 뒤 2년 뒤 산릉에 모셨다고 하여 3년상이 행해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 장례를 치르는 풍습에 대한 기록으로 <사료7>에는 초상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지만, 장사를 지낼 때는 북치고 춤추며 풍악을 울려 장송하며, 매장이 끝나면 죽은 사람이 생시에 썼던 의복·노리개·수레·말 등을 가져다가 무덤 옆에 놓아 두는데,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투어 가져간다고 하여 장례 과정에서의 풍습을 전했다.

넷째, 후장 풍습에 대한 기록인데, 남녀가 결혼하면 죽어서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하고(<사료8>), 장례에 쓸 문건들을 미리 준비한다고 했는데(사료9, 사료11). 생시에 성대한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례식에는 금과 은의 재화를 모두 소비한다고 했는데, 상당수의 무덤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는 점이나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는 것도 고구려의 후장 풍습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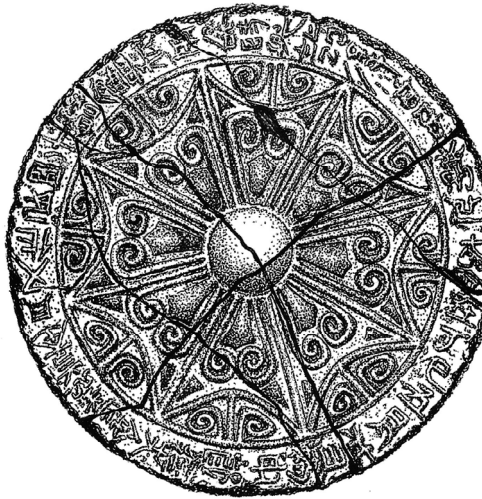


그림9- 우산3319호분 출토 권운문와당 복원도²⁸

다섯째, 무덤의 구조에 관한 기록으로 돌로 봉분을 쌓는데, 괘은 있으나 관은 없으며, 무덤가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벌려 심는다고 했다(사료8, 사료9, 사료11). 실제 고구려 초기의 묘제는 적석총이며 출토되는 장구를 통해 볼 때 목곽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산 3319호분에서 출토된 권운문와당에는 “太歲在丁巳五月升日爲中郎及夫人造蓋墓瓦又作民四千鋟簠用盈時興詣得享萬歲.”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그림9), 무덤에 사용할 기와를 제조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으며²⁹, 이수원자남유적에서 출토된 ‘十谷民造’ 권운문와당의 예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덤의 축조에 기와가 사용되었음은 많은 수의 적석총에서 기와가 출토되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여섯째, 장례가 마무리된 후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료7>에서는 매장이 끝나면 죽은 사람이 생시에 썼던 의복·노리개·수레·말 등을 가져다가 무덤 옆에 놓아 두는데,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투어 가져간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한다.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왕릉급 적석총에서 조사되는 이른바 제대시설을 고인의 물건을 쌓아 두었던 장소로 추정하기도 하는데³⁰, 임강묘의 제대에서 청동제 차함이 출토되며, 다른 고분의 제대시설에서도 유물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장례가 마무리된 후 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당을 축조했다는 사실이다. <사료5>에는 유리왕의 태자 해명이 죽자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고 사당을 축조했다고 전하는데, 매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28 張福有·孫仁傑·遲勇, 『高句麗王陵通考』(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07), 도4.

29 張福有,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與考證」, 『中國歷史文物』2005-3(2005).

30 최태정, 앞의 논문(2014).

여덟째, 장례가 완료된 후에 시제를 지냈다는 점이며, 이를 관장하는 기관도 있었다는 점이다. <사료4>에는 대무신왕이 장군 괴유가 사망하자 장사를 지내고 담당 관사에 명하여 때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매장이 완료된 후에 행해진 시제와는 별도로 고구려에서는 매장행위와 관련한 제사도 확인되는데, 시신을 안치하는 과정에서 매장의례나 분구의례 등이 있었음이 추론되며³¹, 집안고구려비를 통해서도 무덤제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³²

아홉째, 무덤을 축조하고 매장이 완료된 후 이를 관리하는 수묘인 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사료12>는 국상인 명림답부가 사망한 후 장사를 지내고 수묘인 20가를 두었다는 기록이다. 또한 광개토왕릉비에는 광개토왕의 수묘인이 330가에 달했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왕이나 귀족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는 수묘가를 두고 무덤의 관리와 시제를 관장했음도 알 수 있다.

열째, 순장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료10>은 서기 248년 동천왕이 사망하자 이를 슬피하여 가까운 신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따라 죽으려 하여 예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금했으나 장례일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따라 죽어 나무를 베어 이를 덮어 주었다는 기록이다. 이 기사는 흔히 동천왕대에 이르러 고구려에서 순장이 폐지되었음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때까지 순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사자와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 스스로 죽으려 했다는 점과 죽은 후에 별도로 매장 시설을 갖추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적석총 단계의 왕릉급 고분에서 매장묘가 확인되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31 강현숙, 앞의 논문(2018); 장주탁, 앞의 논문(2021).

32 강진원,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39(2013a); 강진원, 「고구려 陵園制의 쇠퇴와 그 배경」, 『한국문화』 63(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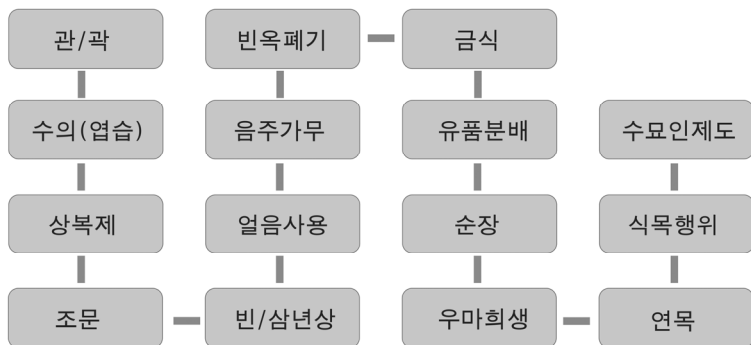


그림10-문헌 기록을 통해 본 고구려 상장의례의 구성 요소³³

이상에서 문헌 기록을 통해 고구려 상장의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중국이나 부여, 옥저, 한, 예, 변·진한, 신라, 백제 등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상장의례를 함께 고려할 때 고구려의 상장의례와 관련된 구성 요소를 <그림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일부 요소는 고구려 고분 등 물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 및 유추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관습과 중국 등으로부터 도입된 예제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중국에서 행해진 유교적 상장예법을 바탕으로 한 요소들이 많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적석위봉’, ‘유곽무관’과 같은 무덤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외하면, 상장의례에서 보이는 신분 차이, 빈전의 설치와 조문, 삼년상, 상복제도, 수의, 수묘인제도 등은 중국의 유교적 예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2. 고구려 고분과 몸

앞에서 문헌 기록과 고분의 구조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상장의례를 살펴

33 최태정, 앞의 논문(2014), 삽도 3.

보았다. 고구려 고분에서 확인된 몸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적 자료는 매우 소략한데, 이 절에서는 적석총에서 보이는 화장 또는 번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적석총 중에는 매장주체부나 적석부 곳곳에서 불에 탄 인골과 용석, 불에 탄 기와 등이 확인되며(그림 11), 이를 화장의 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⁴ 중국 집안시 통구분지 고분군을 오랫동안 조사해 온 쑤런제에 따르면, 조사한 1,000여 기의 적석총 중에서 350여 기의 적석총 함몰부(매장주체부)에서 용석이 확인되고, 290여 기의 적석총에서 불에 탄 석재가 확인된다고 한다. 또한 용석이나 불에 탄 인골 및 기와 등은 적석석광묘 단계에서 높은 비율로 확인되고, 적석광실묘와 적석석실묘 단계에서는 낮은 비율로 확인된다고 한다.³⁵



그림11- 집안 호자구고분의 불에 탄 용석과 기와(©최종택)

34 孫仁傑, 앞의 논문(1993); 方起東, 앞의 논문(1993); 강현숙, 앞의 책(2013).

35 孫仁傑, 위의 논문.

그런데, 불에 탄 용석이나 인골 및 기와가 출토되는 적석총의 매장주체부는 목곽이나 목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화장의 흔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의문이 있다. 이를 화장의 흔적으로 이해하려면 목곽이나 목실을 축조한 후에 시신을 안치한 후 화장을 시행했거나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한 후 잔해를 수습하여 목곽이나 목실에 안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거대한 고분을 축조한 후 목곽이나 목실을 불태운 것이 되는데, 이는 일종의 파괴 행위를 동반하는 것으로 많은 노동력과 재화를 들여 축조한 무덤을 파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처럼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하여 남은 유해를 수습하여 목곽이나 목실에 매장한 것이라면, 불에 탄 인골 외에도 불에 탄 기와와 용석을 함께 수습하여 매납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석총에서 보이는 불에 탄 인골이나 용석 및 불에 탄 기와의 존재를 피장자를 화장한 흔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내성 시기의 잦은 전쟁으로 도성이 함락된 사례와 압록강 남안의 적석총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전쟁의 피해로 인한 결과로 추론하는 견해도 있다.³⁶ 물론 342년 모용황이 미천왕의 능묘를 도굴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절반이 넘는 적석총이 모두 전쟁의 결과 훼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조사된 석촌동고분군의 연접식적석총의 매장의례 시설에서 화장의례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석촌동고분군의 한성기 백제 왕실의 묘역으로 추정되지만 고구려계의 계단식적석총도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된 연접식적석총 역시 고구려의 연접식적석총과 여러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석촌동 연접식적석총은 모두 13기의 적석총이 연접해 있는데, 그중 1호와 4호, 7호 적석총의 동쪽에서 매장의례부가 확인되었다.

36 김용성, 앞의 논문(2005).

각 매장예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토기와 기와, 소토 및 화장 인골 등이 뒤섞여 있으며, 4호와 7호 매장예부는 상면에 황갈색 점토를 덮어 마감했다(그림12,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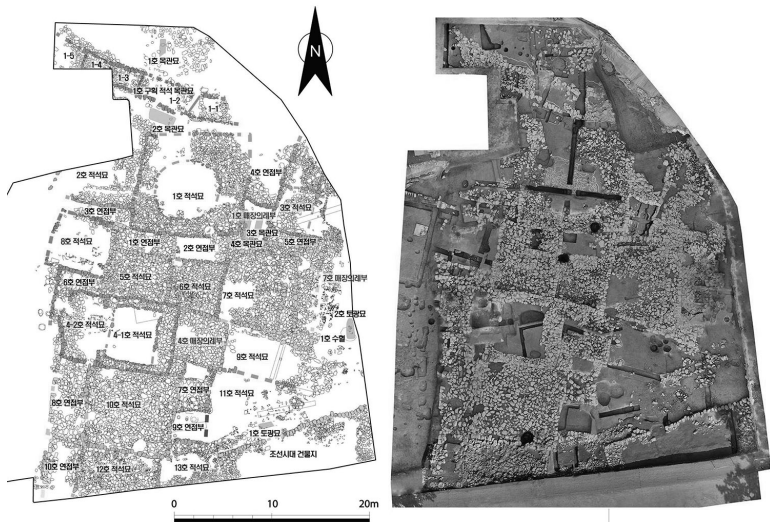


그림12-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식석총³⁷



그림13- 석촌동 1호 매장예부 출토 화장인골과 불에 탄 기와³⁸

37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고분군 현장설명회 자료집』(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19).

매장의례부에서는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15개 기종이 넘는 토기류를 비롯해 중국제 청자, 와당 및 기와류, 철제 무기류와 농공구류, 철정과 꺾쇠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1호 매장의례부에서는 목관이나 목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정 44점, 꺾쇠 50점이 출토되었다.³⁹ 또한 매장의례부에서 출토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1차 또는 2차 화장의 매장주체부 또는 화장유구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서 화장한 후 인골과 불에 탄 기와 등을 수습하여 매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1986년에 조사된 석촌동 3호분 동쪽 고분군의 화장유구에서 출토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이와는 달리 당해 장소에서 화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석촌동 3호분 동쪽 화장유구 등과 같이 별도의 장소에서 화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인골 등을 수습하여 적석층에 딸린 매장의례부에 여러 유물과 함께 매납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화장유구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목탄과 화장된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일정 간격의 주공이 정연하게 남아 있었다. 또한 매장의례부에서는 불에 탄 기와와 소토 등이 확인되는데, 소토에는 유기물이 섞여 있으며, 일부는 기와에 부착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화장이 이루어질 때 점토를 펴고 기와를 얹은 지붕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다량의 관못과 꺾쇠가 함께 출토되는 점은 목관이나 목곽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석촌동 3호분 동쪽의 화장유구는 지상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운 고상식 구조물이 있었으며,

38 정치영,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적석층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2021), 그림 5.

39 정치영, 앞의 논문(2021); 윤정현,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층 매장의례부 구조와 유물」,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2022).

40 하대룡,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본 석촌동 고분군의 화장과 그 의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2022).

그 위에 목관 또는 목곽을 안치한 기와지붕 구조물이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화장이 완료된 후에는 인골과 기와 등을 함께 수습하여 적석총에 딸린 매장의례부에 매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 적석총의 경우 석촌동 연접식적석총과 같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지만 용석과 불에 탄 기와, 화장 인골 등의 공통 요소는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이러한 요소들을 화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석촌동 고분의 사례처럼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한 후 옮겨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고구려 적석총에서 보이는 인골은 주 피장자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순장의 결과이거나 전쟁 등으로 집단 사망한 인물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고구려 고분벽화와 몸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많은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인물의 신분이나 역할, 표현 기법의 차이 및 종교적 배경 및 미학적 인식 등 인물의 본질적 문제보다는 피상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인물의 몸에 대한 관점의 연구도 기계적인 몸과 몰개성에 대해서는 인물의 개성 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나 화공의 역량 부족으로, 문지기나 씨름 및 수박희에서 보이는 장사 등과 같은 근육질의 몸과 개성에 대해서는 이들이 담당한 역할에 필요한 힘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벽화에 표현된 인물의 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미지화되고 상품화된 몸에 길들여져 시각적 표현 주체와 대상을 서로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인물의 몸을 ‘체화’라는 관점으로 해석한 최근의 연구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⁴¹ 우정연은 현대의 이미지화되고 상품화된 몸에 길들여져 시각적 표현 주체와 대상을 서로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체화의 의미를 소개한다. 즉, “타인에게 있어서는 대상이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주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몸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범주 및 담론을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거부하며 그래서 때로는 기존의 범주나 담론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다.⁴²

고구려 벽화고분은 평양과 집안 일원에 121가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로 5세기 대까지의 인물풍속도 계열의 벽화에 다양한 형태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벽화 중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의 모습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상반신에 동물의 몸이나 하반신을 하고 있는 경우, 역으로 동물이나 괴수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목이 길거나 귀가 뽕족한 경우도 있다. 이들 중 현실적인 인간형은 대부분 무덤방 벽면에서 생활 관련 제재와 함께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인간형은 대개 천장고임에서 사신, 일월성신, 서수, 서조, 연꽃 등과 함께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고분벽화 제재의 동반 양상에 근거하여 전자는 현실 세계의 인물, 후자는 천계나 내세의 인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후자의 세계에는 설화, 신화, 종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들은 지상 또는 현실 세계의 인간과

41 우정연,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의 몸과 체화: 유교 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1(2018).

42 위의 논문.

구분되는 하늘 세계 또는 내세의 인간이거나 유사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천인(天人)’이라 할 수 있다.⁴³ 그런데 천인이라는 명칭은 천계에 거주하는 인간에 대한 총칭이면서도 대개 불교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한편 중국 고문헌 중에는 천인이 도가의 선인이라는 의미로 쓰인 예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적 천인과 도교적 천인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와 후자에 대해 각기 비천과 비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비선은 선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한편 고구려 고분벽화 천인 중에는 비천과 비선의 요소가 혼합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천·비선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⁴⁴

위와 같은 기준을 따를 때, 평양권에서 확인된 83기의 벽화분 중 35기에서 현실적·초현실적 인물이 관찰된다.⁴⁵ 이 35기의 벽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3세기 중반에서 6세기 말에 해당하고, 벽화의 주제에 관해서는 생활풍속도, 생활풍속과 사신도, 사신도 중심의 벽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평양권 고분벽화에서 인물은 3세기 중반 금옥리 1호 동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4세기에 생활풍속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여러 범주의 인물이 나타난다. 5세기에 들어서면서 생활풍속도와 함께 사신도가 그려지다가 6세기가 되면 사신도 중심이 되어 벽화 속에 더 이상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집안권에서는 38기의 벽화분 중 17기에서 인물형이 발견된다.⁴⁶ 이 벽화분들은 시기적으로는 5세기 초에서 6세기 후반에 이르고, 벽화 주제에 있어서는 5세기 초와 전반에 생활풍속도에서부터 5세기 중반부터 장식문이 가미된 무덤이 나타나다가 6세기에는 사신도가 중심이 된다.

43 권희경, 「第3期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仙人 仙女像 및 奏樂天에 관한 研究」, 『한국 고대사연구』 20(2000).

44 정수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人像에 관한 研究: 飛天像과 飛仙像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6(2002).

45 우정연, 앞의 논문(2018), 〈표 1〉 참조.

46 위의 논문,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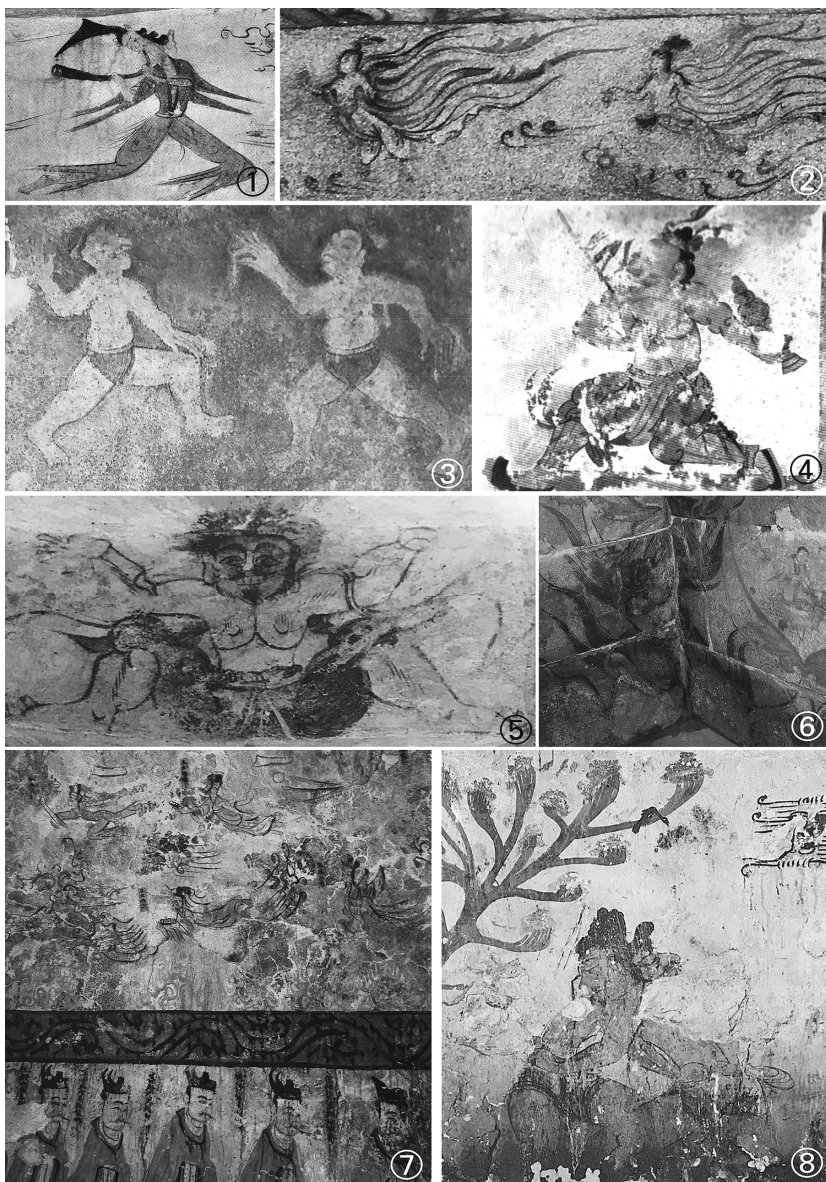


그림14- 고구려 고분벽화 속 인물 각종

(① 비선: 무용총, ② 비천: 강서대묘 ③ 장사: 안악3호분, ④ 문지기 장사: 통구사신총, ⑤
역사: 장천1호분, ⑥ 역사: 오화분4호묘 ⑦ 비서과 관인: 덕흥리벽화고분, ⑧ 장사: 각저총)

고분벽화에서 상의나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인물은 4세기 중반 평양권의 안악 3호분 수박희의 장사로 출현하여, 5세기 이후 평양권과 집안권에서 천인, 수박희나 씨름장사, 문지기, 역사라는 보다 다양한 범주로 등장하다가, 6세기 후반이되면 평양권에서는 천인, 집안권에서는 역사라는 범주로 축소된다.⁴⁷ 평양권과 집안권 고분벽화 속 인물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몸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특징은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중심으로 한 두 지역권의 지정학적 위치 차이 및 역사적 배경 차이 그리고 고구려, 중국, 서역 사이의 문화적 교류 관계 및 교통로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⁴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상의나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인물의 범주는 천인과 장사로, 이들의 벽화 내 출현 위치는 천인이 등장하는 천계와 장사가 등장하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세계 사이의 경계로 한정된다. 신체적인 특징에 있어 천인의 몸매는 곱고 여리여리하고(그림14-①, ②), 장사의 몸은 크고 우락부락하다는 차이를 보이는데(그림14-③~⑥), 이는 상의와 하의 및 신발을 모두 착용한 생활 속 인물의 물개성적이고 밋밋한 몸과 대조된다(그림14-⑦, ⑧).

고구려 고분벽화 속 인물의 몸을 천장고임부 천인들의 작고 유려한 몸, 무덤칸 내부 생활 장면 속 인물의 기계적이고 밋밋한 몸, 무덤칸 경계부 장사의 크고 우락부락한 몸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구분된 몸을 고대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의 젠더화 및 의례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맥락화할 수 있다. 그에 기반하여 무덤방 내부 벽면에는 인물의 개성이나 생물학적인 몸보다 사회적 관계의 조화와 유지를 위해 젠더화되고 의례화된 몸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밋밋한 몸이 등장한

47 위의 논문.

48 강현숙, 앞의 책(2013).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천장고임부는 천계, 널길이나 무덤방 입구 벽면은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로서 인물의 젠더화와 의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사회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인물의 개성이나 육감적인 몸 표현이 금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⁹

고구려 벽화고분에 한정할 때 위와 같은 해석 틀과 결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분은 고구려의 수많은 고분 중 일부일 뿐이므로 고구려 벽화분에 나타나는 몸에 대한 인식이 고구려의 다른 고분에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여기서 고구려 고분과 그에 관한 문헌 기록을 종합하여 고구려의 상장의례를 전체적으로 다룬 최태정의 연구가 새롭게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의 상장의례는 초기에는 지역적인 특색을 많이 띠다가 제도의 정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교적인 색채가 강해지고 그로 인해 신분적 위계에 따라 제의의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유교적인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⁵⁰ 한편 고구려의 지배층은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적인 장례를 치렀으나 고구려에는 ‘음주가무’와 ‘유품분배’처럼 중국과는 다른 고유한 풍습도 있고, 상복제도와 삼년상처럼 고구려의 기존 장례 과정 일부를 유교적으로 재해석하여 변용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인물의 몸을 표현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몸이 아니라 벽화 제작 당시의 문화가 체화된 지각의 매개를 통해 그려진 몸이라는 주장⁵¹은 유교적 전통하에서 고구려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된다.

49 우정연, 앞의 논문(2018).

50 최태정, 앞의 논문(2014).

51 우정연, 앞의 논문(2018).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구려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양상을 통해 조성 원리와 조영 과정을 고찰하여 일정한 예제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적석총과 봉토 석실분의 묘제와 장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고분의 구조와 문헌 기록의 분석을 통해 태학이나 경당 등 유교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유교적 상장의례가 있었음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석촌동고분의 사례를 통해 화장과 번소 행위의 일단을 추론해보았다. 또한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몸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통해 고구려에서 유교적 사상이 어떻게 몸에 체화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고구려 고분과 피장자의 몸이 유교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고구려 사람들이 유교적 문화와 가치에 대해 나름의 위치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었다. 고분과 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한 결과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묘제의 편년과 변천 과정에 집중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廣開土王陵碑」, 『三國史記』.
『舊唐書』, 『梁書』, 『北史』, 『三國志』, 『周書』, 『後漢書』.

2. 단행본

강현숙, 『고구려 고분 연구』, 과천: 진인진, 2013.
강현숙·양시은·최종택, 『고구려 고고학』, 과천: 진인진, 2020.
손수호, 『고구려고분연구』, 평양: 평양사회과학출판사, 2001.
임기환·이즈마 우시오·모모자키 유스케·강현숙·바이건싱, 『고구려 왕릉 연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울: 서경문화사, 2011.
한성백제박물관, 『서울 석촌동고분군 현장설명회 자료집』,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2019.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集安高句麗王陵』, 北京: 文物出版社, 2004.
張福有·孫仁傑·遲勇, 『高句麗王陵通考』, 香港: 香港亞洲出版社, 2007.

3. 논문

강진원,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39, 2013a.
_____, 「고구려 陵園制의 쇠퇴와 그 배경」, 『한국문화』 63, 2013b.
강현숙, 「고구려 무덤제사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101, 2018.
권희경, 「第3期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仙人 仙女像 및 奏樂天에 관한 研究」,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김용성,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
2005.
우정연,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의 몸과 체화: 유교 문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1, 2018.
윤정현,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매장례부 구조와 유물」,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22.
이정빈, 「고구려 태학 설립의 배경과 성격」, 『한국교육사학』 36(4), 2014.

- 장주탁, 「통구 고분군 3-5세기 고구려 적석총 경관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14, 2021.
- 정수희,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人像에 관한 研究: 飛天像과 飛仙像을 중심으로」. 『文物研究』 6, 2002.
- 정치영, 「석촌동 1호분 북쪽 연접적석총의 구조와 성격」. 『고고학』 20(2), 2021.
- 최영성, 「고구려의 유교와 정치사상」.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 최종택, 「집안 통구분지 고구려 고분군의 조영과정 연구」.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 1』,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 최태정,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 상장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하대룡,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 본 석촌동 고분군의 화장과 그 의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2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1993.
- 方起東, 「高句麗의 墓制和 葬俗」. 『東北亞歷史與考古信息』 93-1, 1993.
- 孫仁傑, 「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 『高句麗研究文集』, 吉林: 延邊大學出版社, 1993.
- 張福有,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與考證」. 『中國歷史文物』 2005-3, 2005.

국문초록

고구려 고분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고분의 구조 특징 및 기원과 묘제의 변천 과정 연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왕릉급 고분의 주인공 문제를 제외하면 피장자의 신분이나 시신의 처리 방식 등 피장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고분군의 입지와 분포 양상을 통해 조성 원리와 조영 과정을 분석하여 일정한 예제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적석총과 봉토석실분의 묘제와 장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고분의 구조와 문헌 기록의 분석을 통해 태학이나 경당 등 유교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유교적 상상의례가 있었음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석촌동 백제 고분의 사례를 통해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화장과 변소행위의 일단을 추론해 보았다. 이어서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몸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통해 고구려에서 유교적 사상이 어떻게 몸에 체화되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고구려 고분과 피장자의 몸이 유교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고구려 사람들이 유교적 문화와 가치에 대해 나름의 위치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었다.

고분과 몸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한 결과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묘제의 편년과 변천 과정에 집중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3. 9. 7.

심사일 2023. 9. 28.

게재 확정일 2023. 11. 9.

주제어(keywords) 고구려(Koguryo), 적석총(stone mound tomb), 석실봉토분(stone chamber tomb), 묘제(burial system), 장제(funeral system), 화장(cremation), 변소행위(burning ritual), 유교(Confucianism)

Abstract

Review on the Confucianization of Koguryo Tombs and Body Choi, Jongtaik

Until recently, research on the Koguryo tombs had focu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rigins, and processes of change of the tombs. Apart from the issue of the main character in a few royal tombs, research on the buried individuals themselves, such as their identities or the methods used to dispose of the bodies, has been comparative in nature. In fact, it has been under performing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and processes of construction based on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pattern of the Koguryo tombs, confirming the existence of certain examples.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tomb and funeral rites of the Stone mound tomb and Stone chamber tomb. Through an analysis of the tomb's structure and literary records, this study establishes the presence of Confucian funeral rites even before the full institutionalization of Confucianism, such as Taehak(太學) and Gyeongdang(廟堂). Although there is a scarcity of direct data, certain aspects of cremation and burning rituals are examined based on examples from the Seokchon-dong tombs. Additionally, the manner in which Confucian ideas were manifested in Koguryo is examined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s of the bodies depicted in tomb mural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investigating the process by which the Koguryo tombs and the bodies buried within them were transformed in a Confucian manner, as well as how the Koguryo people sometimes accommodated and at other times resisted Confucian culture and values.

Despite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lack of direct physical evidence related to tomb subjects and bodies, this study departs from the perspective of focusing solely on the chronology and transition of tomb rituals for the Koguryo tombs, instead concentrating on burial practices. By restoring the funeral rites and examining the changing treatment of the buried bodies, this study provides a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evolution of the Koguryo society and the perceptions of its people at the time.

